

소비자 일상 주목하니 새 시장이 보이네

헬스케어·펫 등 포미족 취향저격 서비스
신한銀·국민카드 등 맞춤혜택으로 유혹
라이프 즐기고 목돈도 마련 '일석이조'





신한은행 '스마트 헬스플러스 적금'(왼쪽)과 KB국민카드가 모든 카드에 탑재한 'KB 펫코노미 서비스'. 헬스케어와 펫을 콘셉트로 한 '생활 맞춤형' 금융상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신한은행·KB국민카드

금융

'다이어트·펫팸족을 잡아라!'

금융권이 '생활 방식 맞춤형' 상품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포미족(For me)'과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욜로족'(YOLO·You Only Live Once)을 겨냥한 것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 및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저금리 시대에 라이프스타일도 즐기고 목돈도 마련하는 일석이조 재테크로 각광받고 있다.

●헬스케어로 '헬스족' 및 '다이어트족' 어필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 평소 몸관리에 열중하는 '헬스족' 및 '다이어트족'을 노렸다. KB국민카드의 'KB국민 가온 워킹업카드'는 걸을 때마다 카드 포인트가 쌓인다.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고객이 앱을 통해 측정한 걸음 수가 30만 보를 넘으면 국내 가맹점에서 월 최대 1만점 내에서 이용금액의 2%를 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다. 또한 병원, 골프장, 스포츠용품점 등 건강 관련 업종에서는 월 2만3000점까지 이용금액의 2.3%를 포인트로 추가 적립 가능하다.

은행에서는 신한은행의 '스마트 헬스플러스 적금'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의 건강관리 앱 'S헬스'를 이용해 10만보 이상 걷기, 식단 10일 이상 기록하기, 수면패턴 10일 이상 기록하기 중 하나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KEB하나은행은 건강 다이어트 생활서약서 작성 및 운동관련 수강증, 마라톤·걷기 대회 참가증을 제시하면 우대금리를 주는 '행복·건강 S-라인적금'를 내놓았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건강을 관리하는 스마트유저를 겨냥했다"며 "고객은 건강관리를 하면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금융사들은 트렌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반려동물 지출많은 '펫팸족' 배려 상품도 주목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도 주목받는 고객층이다. KB국민은행은반려동물 상품인 펫신탁을 대폭 개선한 리뉴얼 상품을 출시했다.

펫신탁 상품은 반려동물 주인이 은행에 미리 반려동물 양육자금을 맡기고, 본인 사후에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반려동물 양육자만 가입할 수 있던 것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고, 의료비 및 입양을 위한 인출도 가능토록 했다.

KB국민카드의 'KB 펫코노미 서비스'는 반려동물 업종에서 최대 20%까지 할인이 가능한 카드 서비스다. 테마파크(펫피랜드·리드펫·EARTH120) 입장료 최대 20%, 반려동물 용품점(냉큼스토어·갤럭시펫) 최대 10%, 이삭애견훈련소 최대 30%, 돌봄서비스 엘리펫 15%, 장례서비스 펫포레스트 10%, 택시서비스 펫미업 1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 측은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이 많은 펫팸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앞으로 반려동물 전문업체와 제휴를 더 넓혀 서비스의 다양함과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KT, 미세먼지 ICT로 잡는다
100억원 투자 '에어 맵 코리아' 프로젝트

KT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미세먼지 문제 해법 제시에 나선다.

KT는 20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ICT 인프라 개방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에어 맵 코리아' 프로젝트(사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00억원을 투자하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먼저 통신주와 기지국, 공중전화박스 등 전국 500만여개 소에 이르는 KT의 인프라를 공기질 측정기 설치장소로 제공한다.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공기질 측정망을 구축하고,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내년 1분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주요 거점 1500개 소에 공기질 측정기를 설치하고, 공기질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한다. 개방형 IoT 플랫폼도 구축해 운영한다.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는 정부에 우선 제공하고, 누구나 플랫폼과 연동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경제현장.jpg
"청년상인,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나서요"



20일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열린 '2017 이마트 스타상품 개발 프로젝트'에서 이갑수 이마트 대표(왼쪽)와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음식 맛을 보고 있다. 스타상품 개발 프로젝트는 이마트가 전통시장 청년상인 및 중소기업의 우수 상품을 발굴해 스타상품으로 육성하고 입점 및 판로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60명, 중소 창업·벤처기업 30개 등이 참가했으며, 스타상품으로 최종 선정되면 이마트 입점 및 푸드 트레일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정정욱 기자·사진제공 | 이마트

마침내 모습 드러낸 V30…LG 구원투수될까
F1.6 카메라 등 성능과 가격이 강점
'갤노트8'·'아이폰X'와 경쟁이 관건

IT

'V30'이 침체에 빠진 LG 스마트폰을 살려낼 수 있을까.

LG전자는 21일 프리미엄 스마트폰 'V30'을 국내 출시한다. 9분기 연속 적자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부문을 구할 기대주로 주목을 받아온 모델이다.

일단 제품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대화면 스마트폰인데도 158g에 불과한 가벼운 무게와 7.3mm의 얇은 두께를 구현했다. '패블릿은 크고 무겁다'는 편견을 깨는 제품이란 게 LG전자의 설명이다.

스마트폰 중 가장 밝은 F1.6 렌즈와 120도 저왜곡 광각을 구현한 '듀얼 카메라', 영화 같은 영상을 쉽게 찍을 수 있는 '시네 비디오 모드', 고화질 영상과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올레드 풀비전 디스플레이', 하이파이 쿼드 DAC에 B&O 플레이의 튜닝을 더한 고품질 사운드 등 멀티미디어 기능도 뛰어나다.



LG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V30'이 침체에 빠진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부문을 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제공 | LG전자

여기에 구글의 인공지능 서비스 '구글 어시스턴트' 한국어를 처음 지원하고, 'LG페이' 등의 편의기능도 갖췄다. 또다른 강점은 가격이다. 경쟁 제품이 100만원을 훌쩍 넘은 것과 달리 90만원대를 유지했다. 64GB 모델은 94만9300원, 128GB의 플러스(+)는 99만8800원이다.

현재까지 사전예약 반응은 나쁘지 않다. 이동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뚜렷한 수치를 밝히긴 어렵지만 프리미엄폰의 잇따른 출시 소식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V30도 LG전자의 기존제품들보다 사전예약 반응이 좋은 편이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성공을 하려면 비슷한 시기에 출시하는 타사 제품의 높은 파고를 넘어야 한다.

가장 신경 쓰이는 상대는 15일 국내 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사전예약만으로 85만대가 팔리며 오랜만에 이동통신시장에 활기를 가져왔다. 제품 출시일인 15일엔 번호이동만 4만 건에 육박했고, 시장 과열로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구두경고를 받기도 했다.

여기에 출시를 앞둔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을 기다리는 대기수요를 어떻게 공략할 지도 V30이 흥행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다.

LG전자는 한국 출시 후 10월부터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V30을 순차 출시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NH농협카드, 농촌사랑운동 공익기금 전달



이인기 NH농협카드 사장(오른쪽)과 강덕재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상무가 공익기금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NH농협카드

NH농협카드가 최근 서울 본사에서 NH농협카드 공익기금 2억원을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전국 농·축협 및 NH농협은행의 농촌사랑카드와 농촌사랑클럽체크카드 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자체 적립해 조성한 기금이다. 농촌사랑운동 공동 캠페인, 또 하나의 문화마을 조성, 기업과 함께하는 농촌사랑운동,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등 농촌사랑운동 활성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인기 NH농협카드 사장은 "도시와 농촌의 행복한 상생을 위한 농촌사랑운동에 고객들의 따뜻한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편집 | 이수진 기자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0일

코스피지수	2412.20	▼	-3.85
코스닥지수	668.05	▼	-6.43
日 닛케이 지수	2만310.46	▲	+11.08
中 상하이 종합	3366.00	▲	+9.15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775	▼	-0.004
환율 (원 · 달러)	1128.3	▼	-3.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7619.54	▼	-10.83

오늘의 얼굴

서정진 회장, 주식가치 6조 돌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가가 동반상승하면서 서정진 회장(사진)의 상장회사 보유 지분가치가 6조원을 돌파했다. 자수성가형 부호의 주식가치가 6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서 회장은 보유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 가치가 6조1891억원을 기록했다. 36%를 보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가치가 2조5550억원. 셀트리온홀딩스와 셀트리온스킨큐어를 통해 보유한 셀트리온 지분 20.2%가 3조6341억원이다. 서 회장의 상장회사 지분 가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 부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회장에 이어 4위이다. 한편 서 회장에 이은 자수성가형 부호 2위는 방준혁 넷마블게임즈 이사회 의장으로 보유한 넷마블게임즈의 지분 24.3%의 가치가 2조7472억원이다.

비즈 TALK TALK

●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없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2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관련해 "박 회장이 아무리 훌륭해도 산은의 판단은 기업이지, 특정인의 회생이나 지원은 아니다"고 밝히며)

● **"명단 공개는 어렵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명단 공개와 관련해 "공정성 저해, 사생활 침해 우려"로 명단을 밝힐 수 없다며)

● **"청년이 느끼는 '고용한파'는 여전하다."**(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20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제조업체 에이텍티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자리 추경의 훈풍이 이제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데이터 경제

직장인 체감 은퇴연령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느끼는 은퇴 예상 연령은 50세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781명을 대상으로 현업에서 느끼는 은퇴 예상 연령을 조사한 결과 평균 50.2세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년(60세)보다 10년 가량 빨랐다. 반면 은퇴 희망 연령은 평균 61.1세로, 체감 은퇴 연령과 10.9세나 차이가 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희망 은퇴 연령과 체감 은퇴 연령이 각각 평균 62.9세와 51.6세였으며, 여성은 58세와 47.9세였다. 직무별로는 디자인(46.7세), 기획(47.8세), 마케팅 · 홍보(48.7세), IT · 정보통신(49.0세), 서비스(49.6세) 등에서는 40대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했고, 기타 전문직(52.4세)과 생산 · 기술직(52.3세) 등은 비교적 오래 직장에 남아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